

易言



-6309





Large vertical calligraphy in cursive script, reading '書' (Shu, meaning 'writing').

Large vertical calligraphy in seal script, reading '觀' (Guān, meaning 'observation').

觀宸書籤



서

이 어 일 서는 치 우 성 미 시 셰 일 을 숨 허 고 져 을 질 흐
며 시 셰 판 곡 을 담 기 기 를 성 각 흐 야 그 육 이 은 심 흐

고 적 분 흐 야 지 은 비 라 으 릇 능 익 다 다 치 는 비 잊 고

귀 의 들 너 는 비 이 시 면 그 암에 가 마니 치 록 흐 야 그
죽 절 을 깁 히 성 각 흐 다 가 일 죠 이 황 연 이 셰 다 라 인
흐 야 그 요 긴 흐 물 드 러 셰 상의 절 흐 니 그 말 숨 은
흰 흘 흐 고 번 다 흐 지 아 니 흐 머 그 뜻 은 현 저 흐 고 모
흐 흔 지 아 니 흐 야 일 마다 도 득 으로 베 풀 미 철 직 흐
야 은 흐 흐 미 업 고 그 든 도 건 이 흐 거 판 통 흐 미 절 실

하고 부허^호지 아니^하니 진기^기 셰^세상^상의 빠^빠면^면구 제^제호
비^비잇^잇고 이^이썩^썩에 베^베풀^풀면^면 가^가히^히 힘^힘만^만 흘^흘일^일인^인져^져 흘^흘모
뒤^뒤 이^이언^언 미^미라^라 흘^흘는^는 거^거 손^손 점^점스^스 흘^흘노^노 말^말이라^라 일^일즉^즉 칠^칠천
리^리 밧^밧 그^그로^로 쫓^쫓 는^는 월^월을^을 봇^봇쳐^쳐 보^보 니^니 엿^엿 거^거 늘^늘 니^니 바^바다^다 보
기^기를^를 맛^맛 치^치지^지 못^못 흘^흘 야^야 치^치 우^우 성^성이^이 당^당 음^음의^의 유^유심^심 흘^흘 사^사 름
이^이 끌^끌 그^그 육^육 이^이 탄^탄 복^복 흘^흘 엿^엿 노^노 라^라 대^대 데^데 시^시 무^무 를^를 아^아 노^노 쟈^쟈 를^를
준^준 걸^걸 이^이 라^라 니^니 르^르 는^는 거^거 은^은 총^총 파^파 리^리 욕^욕 을^을 성^성 각^각 흘^흘 즉^즉 원^원 대^대
흐^흐 모^모 랙^락 이^이 드^드 물^물 고^고 공^공 떠^떠 을^을 요^요 험^험 으^으 로^로 안^안 즉^즉 일^일 을^을 그^그 릇^루
흐^흐 미^미 만^만 흘^흘 거^거 시^시 오^오 성^성 정^정 이^이 일^일 편^편 도^도 이^이 교^교 집^집 흘^흘 면^면 변^변 통^통
흐^흐 기^기 를^를 말^말 흘^흘 기^기 어^어 렵^롭 고^고 저^저 죠^죠 와^와 지^지식^식 이^이 오^오 속^속 흘^흘 면^면 진^진

괴할도리를 말하기 어려모니 이는 가장 사사의 장
양가므로 일의 기리란식을 교통국 허며 눈을 흘리
듯이 미라. 의기리란식을 교통국 허며 눈을 흘리
기에게나로. 되능히 마지막 못을 빠라방금련하의 수단
이만하면 꾀비상호니 밧의 눈옹제^{일종의 풍}향총되는
모양^그교안에는 징개^적과 점점^조라는 것^그트며
원치는 늘노보촌^호고교질은 늘노짓더가니 이^여
를 알코다스리지 아니^는면 반도시 소성^을지 못^을
리라 그려나어진의 원이 벙을다스리미약을 분잡
히쓰고 침듯교ств질^을설위며 쓰지 아니^는야도
능하운을 티면 회춘^을하게^는야 오린벙을 돈연이 업

게는니반드시 병든 근원을 숨히고 병든 노릇을 헤여
보와인호야 병의 천심을 알며 병의 묘리를 분간해
고 도시령의 덥고 찬 것과 사귐의 형편의 웅장해고
잔약해 것과 약성 미의 온호하고 령해 거슬가 마나 중
구술연후의 못당히 짹줄거 손싹고 못당히 보호거
손보호는니 엿지 넷방석만거 두어 모화약쁘기를
망녕도이호야요 향낮기를 바라각 나라다스리미
도호이즈는나세상은 고금이다르고 시세는 강약
이이시며 정수 눈득실이잇고 다스리문성쇠이시
니만일시세를인호야 구폐호기를 도모하지 아니

호족이 노화완

옛 책 광렬왕의 완 말 훔

이요 험 이로 빙 범

고 당우 삼위에 신하와 쇼하조 참제 갈량파방현령

두여 회와 한지 범종어의 무리 노족히 데브리 공렬

을 닻 롤 사람 이 업스리라 넷책의 편작 이 진무왕 씨

빈티왕 이 평을 뵈서 놀 편작 이다 스리기 릴 청호 티

좌우 근지 흘오 뒤왕 이 평은 다스려도 하릴 증세 아

나로 쇼 이다 무왕 이 편작 이 게 미 말을 고 흘티 편작

이 노 흘야 편석

평체의 편질

노 돌이라 을 러져 흘오 뒤왕 이 아

는 사람 이 르 러비 러의 론 흘고 아지 못한 노 사람 이

로 러 러이 론을 져 흘고 노 일 노 떠 진국의 정수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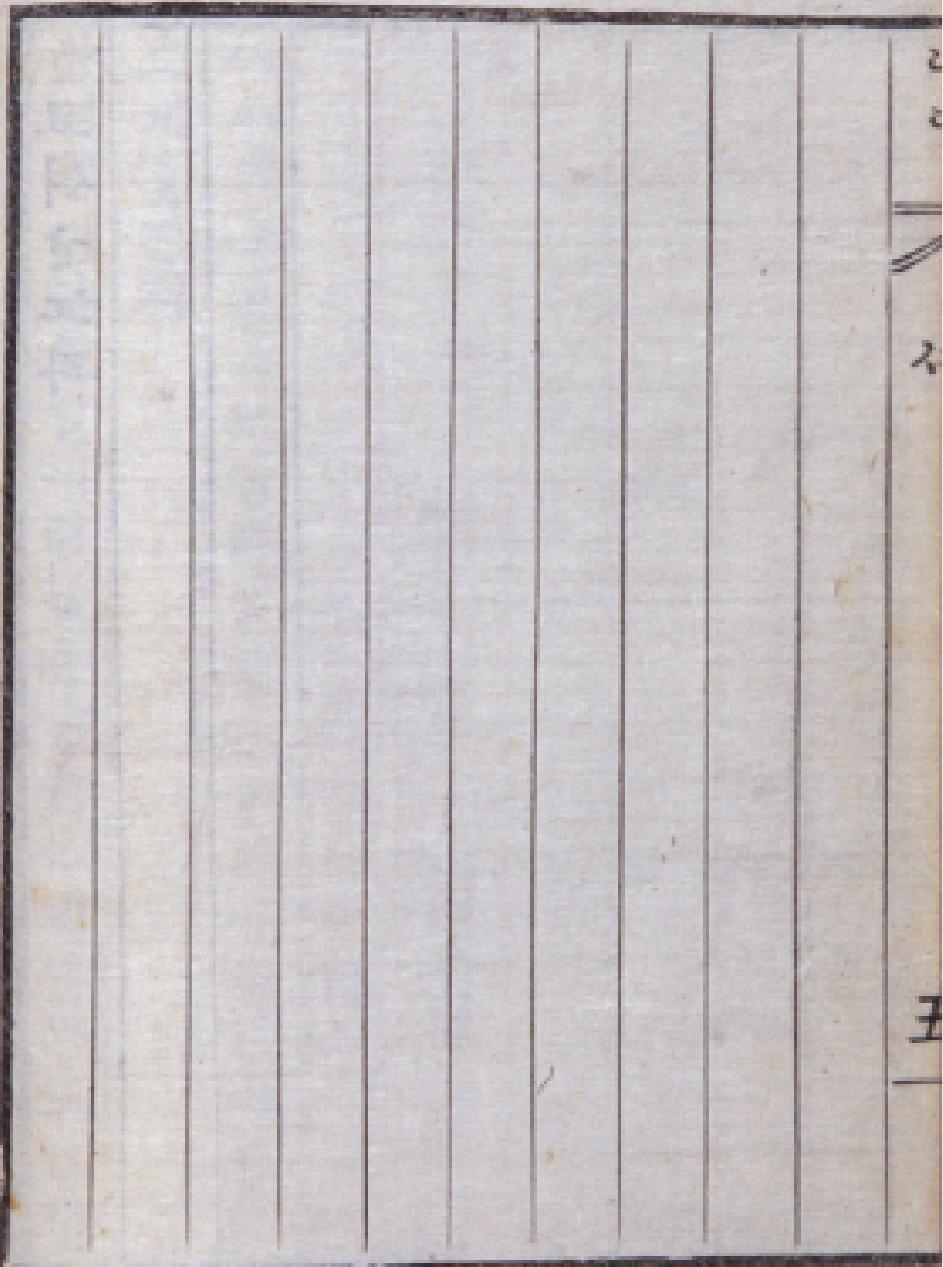
가히 알지 나왕이 이 흐거조의 나라 하망 흐리라 흐
야 시니 금세에 이 술아는 사럼이 업는비 아니로 터
대며 평을 흐리고 의원을 선리며 더 브러의 론 흐
는 자는 그 요진술묘리를 모로는 사럼인즉 안다 흐
는 어시모로는 거스로즈고 평을 치료한다 흐는 거
시 치료하지 아니하는 거스로즈른지라 거우성이
편자의 편석 더지는 거술 아니하고 가의의 소장 베
프는 일일로 흐나 그 충직 흐고 격렬한 심장과 간담이
강하고 격렬한 미었던 흐나 모회라 그 말숨이 쉬
온 거시 정히 그 모임을 괴롭게 흐비라 만일 치며 써

서문제현일을고로게호야 그정신을식식하게호
고버거적지의미친거슬프러그심지를펴이게호
면못총네큰병이반드시하리고적은병도반드시
업셔져일노말미암아이목이총영호고슈족이편
리호리나엇지평조와슈를즈치호고교홍양성불
선의호신
일홍의조최를드로지못호미이시각방음의죠령
의서정신을가다듬어다스리기률도모호시고당
도제공이다그록히큰저죠를가져현하일노몸의
담당호소입을숨으니비흔의말호바른일마다가
하드러시행호야그공효를거둘만호지라만일거

우성으로 흘야 몸 일조의 뼈 이물만나천 거 흘고
 탁 흘야 이 일노 뻐발시 흘야 시 폐밀과로 잡이 머 알
 편된 일을고 치며 폐단을 구원 흘면 나 는 장초는을
 벗고 그 뒤 흘보와 나라 정식 태평 흘밀 알위여 회회
 호호 흘야 국 개 평안 흘고 서외복을 누리 는 양을 장
 초불거 시니 이 논련하에 근심을 몬 쪽 흘는 채 못 춤
 너련하의 질거 모를 나 종 흘지 라 거 우성은 그 힘 뻐
 세상의 흘번나와 련하의 거약 흘고 바라는 바를 맛
 촉게 흘진자

광석원년화죠일에 련남 돈술 능을 빠 쟁양도 노 절

한교선한노락



조서

씨 뜰 성 이로 둔 헌 야 능 허 칙 륙 헌 고 외 오 눈 출 이 드
미 더 내 장 성 헌 미 스 방 이 유 람 헌 야 능 마 다 이 국 사
금 이로 더 브 러 샹 종 헌 미 호 샹 대 은 장 남 에 대 도 회
되 어 남 북 이 판 지 인 이 왕 리 헌 야 모 혀 틀 기 로 지 석
이 퉁 날 헌 호 설 이 션 비 헌 종 종 추 축 헌 야 브 러 샹
종 헌 며 쥬 선 헛 석 그 읍 이 시 무 론 난 헌 능 뜻 고 현 하
태 지 률 만 허 드 르 니 뻐 헌 터 금 세 에 도 률 말 미 암 아
금 세 의 풍 속 헌 뻔 통 헌 려 헌 범) 및 당 하 넷 범 을 볼 거
시 나 주 연 이 먼 데 물 광 을 무 러 그 장 기 를 스 능 헌 야

그 단쳐를 치며 그 빛는 바를 아슬지 라래 셔 사람
중국의 모리거처 흠야 죽종종 그의 론을 펴거 널
관방지 셔 슈슈방관 흠다 가인 흠야 일을 드 라획적
흐니 대개 내로 바일은 문잡 흠고 말슴은 코미이에
서심 흠 미엄는지 라대 더스 히회동 흠미 각국사람
이스 면으로 담지 흠야 셔로 체결 흠고 스피는 일이
网络传播 노크고 달노 기니 일미 문잡 흠고 조아니 흠나가
히엇지 못 흠거 시오 이국사람 미친 압히 거쳐 흠야
듯 눈바를 흡하고 흥습 흠바의 악미 저사람은 나
의 고루 흠말착망 흠고 나는 져사람이고 집 흠근비

우스니 말슴이 크지 말고 주호나 가히 엿지 못할지
라비록 그려 호나 반두시 헤가지 올호문이 시니 강
파바다 는 형례코므로 적은 물을 막지 아니하고 래
산파화산은 미이ooks호으로 흥당이 몰수 양치 아니
호느니 아제련하에 코므로 으로 윷고 암파입잇는 자
는 져마다 아는 바를 다 헤고 그 말슴을 니여 셰상의
션 칙여 뽀 기물기다리니 말슴이 누게 셔낫시를 굿
트여니로. 지 말고 다만 시무에 합당을 벼부만 무를
거시니도 호성세에 금호지 아니 할비오 콘션비의
물나치지 아니 할비라 져 즘이 너동체경오신 미년

간에 한 가히 거 흐야 결을 이 만기로 서 척을 섭렵 흐
다가 우연이 본 비이시면 부술센 혀 거록 흐니 안 흐
로 심忡에 감동 흐고 밧 그로 큰 판국을 료량 흐야 시
무에 어려온 알을 목도 흐리하 슬할 뜻이 업스니 일
언이 폐지 흐고 데 알은 스스로 강 흐게 흐는 것만
지 못 흐나스 스로 강 흐게 흐는 도는 이 두 어 가지에
버셔 나지 아니 할 듯이라 이 러므로 떠 러 가지 도
목을 츠례로 베 푸비 니 다만 그 대강을 드 러 말습 이
요 상치 못 흘스 스로 알 뒤 약간 편 츠 흐야 상주에
투고 스스로 양고 흠분이 모감 하시 무를 이론 흐으

로 드쳐 흠지 못 흘더니 친출벗이 보며 만득 가 져다
가시문관에 보니 고도 관리사람의 관직 흘바문전
록 가온디 그 흐느비루 흘소전을 스스로 습기지 못
흐야 흥상란연 흐며 흐노라 섬에 흘 모리 말 흘기 어
려온 줄이 아니라 헌 흘기 모직 어렵다 흘나 말슴이
임의 족히 판등 흘처지 업거든 흘물벼 말슴이 도 흘
쉽지 아니 흘미각시의 흘모 되 군조는 말슴을 쉽게
흐지 말나 흘고 들팔식이 흘모 티말슴을 엎지 용이
흐게 흘리오 흘나 미술의 잊는 바는 대개 말슴을 쉽
게 흘게 흘리면 허못 흘엿시 흘세상의 천파 흘는 거

손나의 본심이 아니라 말슴이 아름다와 세상에 봐
이 기름원호는 비아니오우미호정성을 다함도 봄
이니 달인 절수는 이 말슴을 더러이 너기지 말고 가
은 치기를 앗기지 말며) 이는 나의 만행일가호노라
광선원년모춘지초의 텔성거우성은 히상뒤학자
의 셔스스로 셔호노라

이언권지일목록

론공법

론세무

론아편

론상무

론기방

론화거

론연보

론기고

론치한

이언권지일

론공법

만국 공법을
의로 허·이라

태션에 인군이 쥬장하는 나라도 있고 백성이 쥬장하는 나라도 이지니 비록 풍속은 각각 가지 아니하는 나의 리는 혹다르미업스니 쳐음기 국호 제국으로 물세우고 레법을 지으며 비상을 선비온즈의 속로 유익을 도리를 물질니 흘야 길게 다스리고 오리 편안하게 흘리 암이 없지 업션 시리오 마는 그러나 시체와 운수를 양고 흘고 성쇠자리를 숨히 전히 부국 강병하는

거시노이연이잇수를알거시나진실노일조일석
의된거시아니라옛적에영질리디경이술국의난
호여각각츄장라_마유이잇수되다준준_는모랑각라
심지어사람_을잡아제지되고연동_을되여점을치
며로학_호교흡_해한미사_름이이리바이업더나라
마국_{나라}_할홈이영국_신흘_로합_한미정_성수와교_해점점
열_니연_지오_리지아나부_더이작란_한야구_라파_제
국이모다화_를걸고그형세_는호여웅거_는엿더니
그후이_정국과법국이서로빠_한지백년에_는벗_한지
라이터므로로심_한수_는야비로_한큰비와대로_를

지 날마다 일어나니 늘 그는 미지의 고을을 향해
노는 데에 이리로저리 철도를 서 밤마다 이션할구니
설마 그는 그동안 한자리에 앉아 있었던 줄 알았고 드디어
그는 날마다 그의 아버지 아버지에게 이고 화장실
에서 일어나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해 주었을 때
에는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해 주었을 때
나를 때려놓았던 그의 아버지에게 그에게 허락해 주었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 그에게 허락해 주었을 때
나를 때려놓았던 그의 아버지에게 그에게 허락해 주었을 때
나를 때려놓았던 그의 아버지에게 그에게 허락해 주었을 때

의 일은 이 범국의 셔니려 나운수쁘기 뜨렸동히 흘나
흘 구라파제국의 지혜와 힘을 다해야 서로 닉토와도
못 촘너 참히 그 베거를 거우지 못하고 더니 백관이리
로 화륜선은 군양이로 황령을 교화륜거는 름도의
황치는 벼관과 선현수 관이니 려 쇠식을 수 만리 밟거
련점호야 경식간의 쇼식을 통수며 밧갈고 깁짜며
죽은 군을 풀고 양창과 대로를 짓는 일이다 고동을
트러쓰게 흐리귀신이 도의 미잇는 뜻을 암죠화에
신거는 물루션호서 이는 져의 맹자호야 히외제국
의 웃듬 되어 떠나면 하늘을 걸어서 흘비라 그려 나백관을

두고 구구호는 공력[을] 렸다가 일죠의 그 저죠를
관통[을] 내신통이 헤는 법은 그 사람의 게잇고 우연
호일이 아니리라 모직구라파 각국이 중국한나라
시절에 비로 쇼[이] 벽[을] 야지금이 천년이 오래리되
지못하고로 그 풍속이 돈후하고 충실하고 인심이
견고하고 알령술[을] 야 중국의 비교하고 면모히려 춘추
적세상이라 대더려도는 수백년의 죄움번하고 수
천년의 크게변하고 내상교적[으로] 숨혀보건대 수
천년이리로여러성인[이] 경영[을] 했시고 일[을] 드지으샤
문명지치를여르시고 계후를봉하고 야법[을] 일우게

호시니 당우로 봇허하은 죄의 나그. 러이 천년에 죠
금도 밟고 지 못 흐더니 진나라의 나그. 러비로 쇼류
국을 아울나제 후를 폐하고 정년법을 곳 쳐 선왕의
법도 물쓰지 아니 흐니 드리여 흐번번 흐양교일을
난호 노린해 된지라 진나라 이후에 비록 성 흐고 쇠
흐며 난호이고 함 흐미여 러번번 흐나 그려나 밟고
로 근심 흐는 밟쟈는 홍노와 결안과 석복번방뿐이
리나지 음인즉 구라파 각국이 군수 노설노 강성 흐
고 기예는 늘도 공교 흐야라 국디정을 침범 흐고 힘
을 미금우기심을 방자히 흐너니 구^여 전구 만리의 두

로 단거 벼 흙한 바 는 뜻 이 있는 자라 중국 의 섬
도 호 바다 절을 험치 아니 하 야 더 브 러 약 도를 세우
고 상고 땅통 하니 다시 호 뻔 뻔 호야 중화 와 이 려 이
련 속을 노련해 된 자라 이 려 미로 물이 즉 호 주변을
고 변호지 모린 주통을 노줄 알 거시 너 비록 성인으
로 뼈 성인을 이어 흥왕호지 자라도 도호 능히 뻔 치 아
니 치 못 호일도 있고 부득 불변 호일도 있 수 너 실 노
련도 와 시운파인 수에 한량호비잇 수 미라 호를 떠
구라 파자국이 절 뜻 호면 지혜와 용력으로 서로 누
로 머부국 강령호기로 서로 흥상호니 우리 중국이

더 브러 많셔 미 부드 물조 속 흐야 제어 흐 기를 급히
성 각 흐야 뻔 흐 말인 흐야 원도를 뿐지 라 그린고로
공법약장 만국 공법의 약 이 데 명호 글 을 몇 당히 닥을 거시니 아
니 닥근 즉 죄의 눈 합 흐고 우리 눈고 단 흐 즉 시 오 병
법파진 법을 몇 당히 련습 흐거시니 련습 흐지 아니
흐즉 죄의 눈 장 흐고 우리 눈 약 흐 형세으 양창과 대
포의 치게 릴 몇 당히 정예 흐게 흐거시니 정예 흐지
아니 흐즉 죄의 눈 리 흐고 우리 눈 둔 흐거시 으화 룬
션과 화 룬거와 던 치선을 몇 당히 뿐거시니 뿐지 아
니 흐즉 죄의 눈 속 흐고 우리 눈 더 릴거시 모 련문디

리와 격치지 학재 물 치 지 흥 야 중 과 산학을 뜻 당히
통할 거시니 통하지 아니 할 즉 저의 눈 공교를 고우
리니 졸할 거시 모금은 감을 열고 상로로 통하고 밧
갈고 김연 눈 알이 몇 달 하 힘쓸 거시니 힘쓰지 아니
할 즉 저의 눈 가음 열고 우리도 비법 훌지 라 슬프다
세번은 령 술 미업고 부강은 방 되잇스니 모직고 금
을 침자 야 넷 말을 고 집하지 말며 시세를 안 해야
못 담는 법을 지 어전례의 구이 허지 말고 힘써 험 험
기를 모리 험 면 이 효험을 징성할 거시니 이제
아라스와 다못 영국 미국과 보국법 국파오 국일국

모든 나라 형세상으로 단토와 단니니 전국 떠칠국
으로 무어시다 르리오의 론호는 채니고 뒤 아라스
는 형승호는 히웅거호야 부강호형세를 조랑호고
로디를 치쳐 흐며 정신을 가다듬어다스리기를 도
모할즉 진나라의 련횡을 홀노잇서타국이라호는 형세와
그고 영국 미국과 보국법국과 오국일국모든나라
는 약도를 세우고 맹세를 맡고는 벼군수를 련습하고
정수를 닉가 일심으로 아라스를 광비호즉 륙국의
합종 여러나라히합호 야호는 형세와 그트리제국
이방자호야서로 업리며 화친호기물 편안히 너기

는 자는 오직 만국 공법을 볼 줄이니 미리 그 땐 공이
로 거슬러 일국만 수스로 이 훔비 아니 모법이 면 거슬
여러 나라에 허지 못해 그 법을 험하는 거지 나그러나 영
영 미 허락하는 것과 가마니 허락하는 것과 심성의
로 쇼수나는 법과 예수로 이 허는 법이 이 리로 법을
숨고 빠호는 리해로 창령을 숨으니 다련리인 정방
치 버셔 나지 안는 고로 공법이 허번나 미 버려 나라
히 감이 방주 허 험처 못 허니 실노세도 와민성의 크
게 유익을 나그러나 반드시 스스로 제나라를 보건
되 능히 만국가 온데 허기지 되 엄마주 허연 후아 공법

이 가히 한 나라로 만 험우리 중 국 이 스스로 거로니
디 구한 자 온 땅에 있다 하여 다른 나라를 다 이 련이라
지 목을 고향 래 이리 정을 그 어스스로 저하고 먼 데
도 모호기 를 일슴지 아니하나 가통 생을 두 후로 떠 려
나라 하그 부강을 미더 경세로 석로니 어 밧 그로
는 화친을 가락하고 안회로는 엇 볼고 암울이 두는
고로 중국을 공복 가온 데 버리지 아니하야 외 뒤 흘
는 뜻을 보이지 말 중국이 도한 만 국 중에 하나하되
을 주쳐 하야 공법의 참에 흘 물 물건 하니 기고 레일
노 손 중 흠만 보이니 정히 그 땅과 외로이 앗석 구원

흐리고 그 해 끝에 노박는 즉시 나 불가 불번연이
제고를 뻔 헐거시 모도 중국이 되크지 못하니 넷적
에 랑광과 랑호와 오월은 다 미역의 켜끗치고 흥노
와 오환파서 강은 반미나 웅역이 되엇더니 한나라
의 나로 러남으로 고지명^국 를 동^고 동^동으로 락^락 랑^랑
을 지나 난하고 옮을 민^민 교원^{교원} 나라와 령^령 나라를 지
나 본조에 나로 미 흥노와 서강의^의 하다리도 가온
되드려오며 죄선과 안남이^이 도 번방이 되나 폭원의
나로 미네보다만 흔비분령^한 티디 구구만리가 절
반은 외국이 데의 켜롯쳐시^시 나 일왕에 경^경 통^통 중^중 국

이드디여 그정스에 득실파 강약의 형세 업더 흐를
상고 흐지 아니 흐고 스스로 족히 변방을 어거 흐야
스 이로 반복 흐게 흐다 흘거시 마니라 셸스원방나
라를 향복 밧을 계척 이잇다 흘지 라도 못 담히 춘츄
필법지 치 흐야 나라 하적다 흐고 그 말숨을 다르게
아니 흘거시니 대더디 구의 통군형례 임의 통세업
스니 엇지 가온리와 가하잇스 마린디 간에 흘가지
로잇스니 엇지 궂드며 이력과 중화를 분간 흘리모
만 일중국이 만국중에 하나 흐로 조쳐 흐면 저의 공
법중에 흘노 중국을 세 혀쓰칠이 많고 우리 중국에

법이 높아 하만국에 험한 범이 그려져 가고
그 치는 범이 오는 거시곳 나의 가로 치는 범을 앉고
려가 미라풍기 한번 물니면 패연을 막을 실이 업
서성인의 되거의 만리지방의 멋쳐 혈거 있는 재능
하고 친치 아니리 업술거시 고문명^{한교}화의 퍼지
미미에 먼나라리라비제를위 흐야^재교전이 중국
이 못당히 수신^을보니며 각국 수신^을회동^한후 중
국법을 만국 공법의 합^한야류^한으로 구별^한고 문호
를 난호와^한자^한거 손진실 노파^한간에 통^한호거 시
네^한국^한여파^한하^한려^한호^한비^한아^한모^한다^한로^한거 손각각 그

을 흰 일만 험 호야 각 박히 셔로 얼미지 말며 혹 그고
다른 틈이 베인 거 손 셔로 침작 호며 할 짓 치울 흔
도 리로 귀 긴 호 흑 살 벼 줄 윌 일 드러 스신 율 보니며
왕 리 호 야 셔로 빙 문 윌 통 호며 제국 윌 크 게 모화 약
도 물 셰 우고 링 셰 물 려 호 야 간 사 흥 도 업 고 소 우 흠
도 업 시 영 영 셔로 각 근 이 직 회 터 감 하 공 범 율 비 반
호 고 장 호 미로 뼈 약 호 이 뮬 업 슈 하 기 거 나 일 율
빙 자 호 고 흔 단을 벼는 채 앗 거 든 각 국 이 회 동 호 야
그 죄 목 을 쇼 리 호 고 흠 거 칠 거 시니 두 어 나라 군 수
를 모 화 호 나라 를 치 러 제 반 드 시 터 려 지 못 할 지 라

만^한한^한이^한 회^한과^한 흐^한야^한 스^한 시^한 을^한 보^한 고^한 여^한 화^한 진^한 흐^한 기^한 물^한 칭^한
흐^한 서^한 든^한 흥^한 군^한 흘^한 죽^한 뿐^한 부^한 비^한 른^한 비^한 양^한 물^한 대^한 빛^한 눈^한
례^한 릴^한 이^한 서^한 흐^한 야^한 그^한 경^한 중^한 을^한 숨^한 허^한 보^한 아^한 걸^한 전^한 을^한 이^한 물^한
야^한 밧^한 은^한 후^한 이^한 각^한 국^한 이^한 고^한 로^한 난^한 화^한 공^한 흐^한 게^한 흐^한 고^한 만^한 일^한
흉^한 악^한 흘^한 빛^한 고^한 허^한 물^한 을^한 끗^한 치^한 지^한 아^한 니^한 흐^한 야^한 떠^한 러^한 번^한 처^한
도^한 항^한 복^한 지^한 아^한 니^한 흐^한 노^한 자^한 떠^한 든^한 비^한 른^한 쇼^한 군^한 스^한 물^한 험^한 흐^한 야^한
그^한 나^한 라^한 른^한 흘^한 험^한 고^한 그^한 죄^한 른^한 꽉^한 춘^한 츄^한 에^한 래^한 이^한 릴^한 꾸^한
흐^한 미^한 그^한 드^한 흘^한 투^한 어^한 가^한 흐^한 아^한 니^한 인^한 군^한 월^한 만^한 흐^한 이^한 릴^한 꿀^한 노^한
갈^한 히^한 벼^한 성^한 을^한 릴^한 고^한 공^한 신^한 을^한 혁^한 릴^한 시^한 셰^한 릴^한 숨^한 허^한 고^한 껌^한
을^한 껌^한 흘^한 서^한 시^한 기^한 대^한 더^한 이^한 리^한 흘^한 죽^한 화^한 친^한 흘^한 노^한 관^한 국^한 이^한 가^한

히오리가 기를 쳐서 훌거시 오병화도 후전이려 일
진더그런연교로 오직도잇는나라는전기비득란
주만호지라도족히스스로보전할거시오무도한
나라는비록부강한나감히스스로굿세를발휘지
못하며구만리말통하고갓갑기호령출입할듯할
거시오수십국을련호되손가락이팔이부리듯호
거시니병혁의수오나온괴운은번호야일월지팡
이되고만리지방이우로지뢰을고로거름이물보암
즉호리나도호아를답지아니호랴

론세무

부
률세
법는
론호
마
라

넷殖民에 하우시회계를 치로 헤을이 앗고 쥬판에 자
용다스리는 도목을 지엇시니면 하물둔제 열의하
나부세박노법을준殖民호야 백성의 계취호야 국용
을이 밟고 백수를다스리게호 미라 중국이 히 음바
의 외국사람을
금하는 법이라을제호그로 낫히 각국으로 더 브러
통상호더니도 광이십이년에 중국과 양국이 약도
를세위양인의 온즈물화로 뼈로 구의드려 모면세
를밧치게호후로 낫히 중국상고 각처의 가홍판
홀제판문을지나면 다만 물화갑술상고호야 미량

에 셰를 러 헤 터 죠 품 이 라 도 파 람 헤 게 못 헤 니 이 씨
당 도 지 인 이 중 국 에 부 셰 밧 는 익 수 가 각 국 에 비 교
흐 건 터 헐 흐 미 스 모 비 칠 팔 비 에 나 르 는 거 시 잇 스
을 아 지 못 헤 는 고 로 약 빙 셰 우 기 름 이 그 치 헤 미 러
네 후 에 련 해 다 소 헤 야 군 수 를 부 르 며 용 망 있 는 이
를 쇼 모 헤 식 비 로 쇼 물 화 를 의 목 헤 야 츄 리 범 원 세
에 이 리 오 호 그 른 더 맃 는 범 이 라 을 창 치 헤 야 군 량 에 조 릭 헤 게 헤 니
대 더 상 고 는 흥 관 헤 기 로 성 애 헤 는 지 라 만 일 도 적
을 평 경 치 못 헤 야 길 이 통 치 못 헤 린 물 화 를 미 매 헤
기 반 드 시 러 달 지 라 그 런 고 로 져 마 다 셰 전 밧 치 기

물고기 원한 떠도 츄리밥을 물화에 합슬더니 져 밟는
거시니 여러 사람의 게바드 미전은 거시 속 속 만하
지니 이리 미로 백성도 칭원이 업고 상고의 계도 해
로 온 비업석가장 만경 바들썩의 노일본과에 히비
의 맛도 수효가 이천만에나리지 아니 흘더니 이
제비로 젭이 참을 엿시나도 흘밀천 모백만은 되는
고로 시러 몸도 적을 평령하고 래령을 누리는 거시
이 일의 만남과 미라 츄리 밟는 잡 길 목 세 허 주를 과
계신 은 함 비 흐 머양 고의에 암을 주 장을 드는 판원이 혹
구령호 기Marvelous 흐고 흑령화에 잡을 만히 베풀리

양인이 저의 물화는 츄리 보면 흘려 흘는 말을 고집
흐야요 긴 흘레 목을 숨고 혼연이 약도를 어찌여 중
국의 셔주 양 흐는 훈을 아스라 흘니 셜스 츄리니는
거지파연 양고의 게 해로 올지라도 국왕이 저 이 펴
일 떠를 기다려 스스로 침자 흘야 층 층 면 셰 흘거 시
오 걸단 죠 외국사람이 아른데 흘비 아니여 놀이 저
도 적은 비록 흘금 흘금 시니방어 흘는 영문을 아직
철파 흘지 아니 흘었고 던 셰도 모하려 복고 가못되
엿시며 여려 가지로 후스를 흘척 흘는 거슬다 빙 치
흘거 시니화류션을 지으나 양찬 대로 물인드는 거

술다츄리밧는돈으로미봉호지라미제이를바린
즉아모계회업고백석다희이호거시오도중국상
교드리츄리를모피호기로셰전밧친레문을닷토
와스는교로양국셰전은일노인호야더옥성느니
만일츄리법을령지호즉양국셰전은반드시만흘
거지모세전의루락되는거시감호무잇스나더호
문업술거시나이논조연호수셰라당초에츄리법
설시호번에양인의문화도각로구의션셰전을바
드되모하려이론이업더나함풍팔년십일월에중
국파서양이약도를다시령호식양국문화와중국

토산물화를 할 번 만 셰전을 밟치고 다른 쪽 구의는
연 셰호기를 원하는 자는 미 백에은 주이량 오전식
밧치고 반 셰전 밟친 데 문을 뇌여 죠 어빙고 흐게 흐
고 아모리로 슈운 흐야 가든지 다른 쪽 구의는 셰전
을 다시 밟지 아니 흐며 반 셰전 밟친 데 문이 업는 자
는 판문을 지나거나 잡을지 나든지의례 이 셰전과
츄리를 밟치게 흐니 이는 양국 양교를 두 돈 흐야 멀
노이은 련을 베풀미니 중원 양교의 게비교 흐면 대
리 소판인 고로 중원 사물의 간사 흐재 미 양양인으
로 부동 흐야 셔로은 낙 흐리 중원 양교를 터신 흐야

반세전방친례문을 맛라주교은을 맛는 자도 이 시
며 양국상고를 티신 는 앙국비의 양국약지와 온
즈 물화를 슈운 는 자도 이 시며 후 물 음 데 업는 중
국 물화를 호송 는 자도 잇서 머리 가지로 환통 는
미 폐단이 주심 는 앙국세전파 츄리방드법이다
폐단이 되니 중원양교의 고지식 는 자는 능히 츄리
흘칠이 업수 미 만히 양인의 게 볶치며 롱간 는 앙
스 는 자도 혀 츄리법을 철파하고 판문의 슈세를
비를 더 흘만지 못 는 자고 다른 조구에 슈운 는 자
는 인 는 앙 반세전을 맛은 즉 양인도 빙자 흘말이 업

고종국상고를 도어^이월^을비^을술^서시며^을모^며양
인의^의죽판^한는 향^향과^과 모문^다_{포구}^일홀^을상고^한야
보니 츄리^밧는 전례^업는 지라^{상고}들이 그^곳으로
가는^가재^만흐^나 물^화령^령흐^야 팔^기 쉽^고 츄리^를법^법
흐^는고^로 향^향과^와 문^의 물^화는^는 노^노 만^교 종^국 각^각
처^의 성^해 노^노 노^노 박^한 노^노 웃^나 라^의 업^슈 히^녀 기^기
물^밧 고^양 국^의 저^들 은^원 만^못 계^계 흐^는 즉^시 며^도 월^월
동^위 성^성_자^리 _{ーム}^의 이^이 슈^세 흐^는 꿈^꿈 을^을 꾸^미 그^도 건^이 삼^삼
히^크 니^비 성^성 을^해 룸^게 흐^고 교^화 를^상 흐^게 흐^리 능^능
히^그 폐^단 을^막 지^못 흐^니 간^사 흐^리 비^생 드^리 모^문 은^은

로 율파가 인한 약 젠조는 재임되었고 물파를 떠나
세전을 떠나 분수를 떠나 전진 삼년이 지나는 이
오십만량의 모리 고양인의 죄도와 가서 이는 그려
바모술리(부리고기)를 모라 드리며 슈풀(풀)이 드리
식물로 라미리 미라래서 각국에 세전 밧노대 데 물
말죽 양고수(미백)에 이십량 도취(도)하며 후수 십량
도취(도)하고 그동안 흔거신(즉미백)에 백량을 취하는
쟈도 이시며 도전 수히 세전을 맛지 아니하는 쟈도
이시니 대여 경종지간의 스스로 임편(임편)할 켜고를 위
호미라 유파 담배는 외양의 셔슈 세(세)하기를 즐기

고 중국의 셜 양국술을 밟아 주님을 멀리하고 파노자도
오히려 세전을 밟아 거친 미년의 포구로 드러오는
려송연 라 송국과 양국술이 그 수회 심히 만회 한
담배 만히 머물거시라 헤야 세전을 밟지 마니 헤나래 셜
의 노이란전례 일절 엄촌 즉 더 옥공 번되지 못할지
라 이제 못당히 석법을 다시령. 헤나 각국의 슈세 헤
는 법을의 방 헤야로 구로드려 모는 물화를 더 밟게
하고 담배와 술마 아편연 제 비 제 는 등물을 셰
련을 훈히 밟게 헤야 평간 헤고 빛 부끄럼 많아 벼주 옥
금 슈의 온갖 완호자 물은 제 제 제 일용 음식의 당치

아니 허비니 비록 셰전을 잡겠노라고 츄리 멀리 바
다도 간 난 허비니 셰전과 부요 허비니 셰전이 케운 상 허비니
술 거시 오도 헐통이 고개 허야 아국의 엄는 거시 어
든 셰전을 경히 허야 오 눈 균원을 허고 허고 있는 거
시 어든 셰전을 풍진 허야 가는 철이 박씨 허고 경중
을 져 올 노나 드시 허야 우리 장수 허고 백성 허고 호위
한며 만일 경 허전 변지 허라 허경) 셰어 허폐단이 만
홀 가념려 되나 모직 치약이 찬 후약도 르앗 물썩의
슈세 허는 법을 못 쳐 데 허고 소리 허로 힘 빠 닷토와
그 떠히나 이 껌도에 나아 모게 허후에 말 거시 나라

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
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急急如律令。

로하원

하원 헌 훈 을 이
교한 이 라

여 더 뜻 서 주 보 보 여 죠 여 홍 세 대 인 천 양 르 주 이 떠
인 도 수 교 폐 단 을 가 하 고 한 편 관 카 거 슬 기 우 연 라 이 솔
이 이 헤 다 흐 트 어 교 고 나 라 정 인 한 야 우 기 한 미 한 푸 트
지 자 라 그 리 고 로 껌 쉐 우 기 미 껌 부 이 불 우 한 헤 노 시 오
인 성 이 교 미 풀 자 풀 여 선 예 지 한 금 부 한 금 한 한 한 한 한
구 이 미 금 오 이 로 보 한 독 한 금 운 이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자 우 한 수 십 한 이 로 구 로 나 가 한 이 불 가 한 수
한 만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중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여는 가히 흡수업 셔도 형세는 오히려 가히 당칠만
호적 양속 각심^의는 거슬금 흠지 마나니 만지지 못
하니 넷책에 릴문총사금의 일 흠 미아편연을 금 흠 래 흔
다가 변방의 세치 기의 뉘고 세상의 다시 나오기
의 믿처석는 양속 각심^의는 거슬금 치아니 흠며 일
즉 말습 흔뒤 임의 능히 금 치못 흠진 티 백성^의 려 임
의로 신^의 게 흠만 지지 못 흔니 그리 흔면 백성^의 리
로 온 일 이루 랍 흔노 폐물 막^의 리라 흔니 먼니 넘려
흐고 깊히 쌔 흔노 거시 실 노 심상 흔사^의 립 흔
출비 아니로 다이제 셈 셔와 감숙과 운남과 귀주와

진드^드 촉드^드 와 강남의 제 죠와 전강의 데 죠등 채이다
일^일 속^속 작^작 을^을 심^심 이^이 내^내 퍼^퍼 지^지 기^기 끌^끌 텁^(tensor) 맘^맘 하^하 흘^흘 면^면 시^시 나^나
러^나 그^그 심^심 이^이 노^노 바^바 토^토 품^품 이^이 양^양 국^국 도^도 품^품 보^보 다^다 밤^밤 흘^흘 고^고
먹^먹 는^는 채^채 독^독 치^치 가^가 경^경 흐^흐 미^미 청^청 대^대 미^미 옛^옛 드^드 내^내 경^경 계^계 흘^흘 기^기 도^도
흐^흐 누^누 오^오 리^리 라^라 흑^흑 이^이 흘^흘 모^모 대^대 인^인 심^심 이^이 간^간 사^사 흐^흐 미^미 만^만 흘^흘 기^기 도^도
모^모 린^린 주^주 반^반 드^드 시^시 그^그 짓^짓 쟈^쟈 스^스 모^모 참^참 쟈^쟈 슬^슬 어^어 주^주 려^려 이^이 흘^흘 야^야
부^부 동^동 흐^흐 야^야 리^리 뮤^뮤 구^구 흘^흘 노^노 채^채 잇^잇 스^스 리^리 라^라 흘^흘 티^티 나^나 노^노 르^르
터^터 셰^셰 양^양 만^만 물^물 이^이 다^다 진^진 품^품 이^이 아^아 릴^릴 가^가 텁^(tensor) 흘^흘 흘^흘 노^노 이^이
거^거 손^손 그^그 짓^짓 거^거 시^시 방^방 해^해 롭^롭 지^지 아^아 흘^흘 흘^흘 흘^흘 노^노 흘^흘 노^노
신^신 즉^즉 독^독 치^치 가^가 더^더 옥^옥 경^경 흐^흐 양^양 경^경 계^계 흘^흘 지^지 아^아 흘^흘 야^야 도^도 경^경

제하고 금호지 아니호야 도절 노금호야 일후의 장
초수한면 암빠 일홍파 암빠 치보리라만 일양국의 셔는 허
외국전례물의 방호야 세전을 본갑에 셔 갑절이나
더밭고 본국의 셔는 전례 암빠 티로 세전을 바드니 이ing 속
각심이 는밭친즉 대동을 돈으로 밟치는 전례보다
갑절을 밟아 양국토산은 갑시만 죴 쳐토산은 갑
시 헐 암빠 게호면 사률이 장초본처토산을 만히 먹고
양국토산을 섭게 수면 암빠 엿지나 라와 백성의 게코 게
유익지 아니호 라혹이니로 티중국의 셔거 두는 바
아편연세전을 섭 양국사률이 임의 삼을 견 암빠 는 약

도가온티시리시니더호기물이론호기쉽지못호
리라호되그러치아니호일이아편연은사물을해
호노물건이라원근이다아는비나외국의서능히
그오는근원을손치못호며)세점을더호지라도힘
뼈막기어렵고호를여서국전례에토디소산에물
화노로구에나갈때슈세도업고츄리도만치아니
호되오직로구로드러오는자는반듯시슈세를충
히밧아토디소산이풀녀나가기물쉽게호고조호
미모담폐와술인즉반드시그슈세를중히호기는
그듯이당초에빠슬업시호고조호미모백성의게

해롭게 흐미 아니라 죄의 나라에서 임의 향 흘었거
니 중국에 선을 엊지 홀노 헹치 못 흘리오 도 아편연
의 밀미 되미 그 올적에 도 층 층 왓시니 그 임시 홀적
에도 쇼모 담히 층 층 홀거시 라시 험호야 보건 뒤
기전에 아편연 갑시 귀 흐미 먹는 채 전더니 그 후에
갑시 천호미 먹는 채 더 옥만 핫시니 만일 세전을 더
흐면 갑시 급히 물이 고 먹는 채 경점적을 거시니 쳐
음에 식모나 올 땅와 그를 리치오 도 아편연을 먹으
면 그 정신을 쇠삭하고 심리를 모손 흘야 업을 폐하고
며 가산을 파 흘기에 아니로 는 니 그 고 질이 심히 깁고

그 해로 모 미심히 충^충을 지라 세도에 모임을 두는 채
급히 죠령에 주청^호야 일주를 한^당하고 각 쳐다방
판의 계신^석 흘^야 위선 아편연^빠 아둔^둔 집^집을 업시^호
야 퍼져 가는 폐단을 면^면 흘^게 흘^고 진신^파 속^족의 계
신^척을 야착^실이 퀸^호고 일녀^점점^점 업^음 흘^리 만일
지한^이지나^도록^오 히려^먹는 채^잇 거^든 소^죽은 땀
흐^야 하^천을^안 둘^고 충^충을^물노다^스 리^며 벼슬^호는
자는 죠령에^상 소^호야^론 회^호게^호 머^을 긁^는 자^는
파^거 보^지 못^할 게^호며^군 속^에 당^할 자^는 제^제령^하의
료^를 르^주지^자 말^아의^판 지^렬에^부 치^지 말^여 스^류의^셋

기지못^흐게^흐흘^거시^니이^지치^흐면^사람^마다^법을
두려워^흐야^여기^를경^계^흐며^는중^국제^물이^외양^의
흘^나가^지아^니흐^고현^하백^성이^각각^그잇^친힘^을
습^을더^러바^린즉^래평^흐게^다수^리물^을가^히눈^을씻^고
기^다리^지못^흐라

론상무

장수호는스무
률의론호미라

대더구라파쥬각국이통상호으로빠른법을슴고
거계인들은거스로뻐근본의수무를슴으니대개
세전을문화의밧고군수를상교의보치미라통상
흐기전의노디경을그어스스로직하고서로왕리
흐지아니흐더니이제노온즈문화가흘너통을고
각국상교가구름못듯흐나설수이나라제물이져
의임의로흘너나가기물바려두면저나라리로온
거시능히련속히오지못할거시나흘너나가는거
슬막지못하면모리막장초안져꾼할지라그런고

로 대서 각국의 선제마다 리밋잇는 바의 는싸라가
기를 빛 출도시 흘느니 고부를 전 흘라 단니는 재족
중국의 인심을 항복 밟고 조 흘뿐 아니라 겸 흘 야 양
국상교의 리해를 탐지 흘려 흘미라 상교 흘전 흘영
국의 선로구에 드리모는 물화세전을로 구의나가
는 물화보다 갑절이나 풍히 밟고 본국에 선가 밟기
는 타국에 비 흘련전이 업 흘게 바드니 상교의 게 편
흐고 물건나가는 길을 훤출 흘게 흘미모오 직 흘마
다여 려상교의 모 흘바리로 흘실 흘야 팔십분의 일
분을 흘는니 중국의 호구부세와 대강즈고 나라의

션준바보성

공로잇순즉보래등물노민드파쿄지
리몸의자나케는거시라

마쿄지

공로밀묘하야밀치법이삭여명망으로내기며미

세로향거시라

방은은조
석광색도

년이드러오는거시한령이잇션삼백방

이라증이하는세전을맞지아니하고만일상교의

스무에개판호재미시면반드시의정원으로호야

곰판원파양과셔로의론호고회계풀야일이온당

호연후에시힐수며상무대신을설시호야그일을

전쥬호마다스리게호나이러므로리로온권세물

홀노천단호야홀노부강호리나루교잇는바상교

모하는포구와요간호디경의다공스와령스란벼

술을 두고 슈군과 전선을 쳐 호위 술을 주고
위풍을 풍장 하늘 옛다가 만일 환단이 이시면 이거
술미더제어 흐리고 흑기 향을 기울 청을 거나 흑여지
로 츄리를 모면) 흐리고 구호는 비스리 미업션 반
드시 큰 욕심을 치온 연후의 마더라 처음의 영국이
있드 등처의 드 흘세하고 기향을 야뜻이 통상하기
의잇더니 그 후의 름을 보아 인도등처를 다 침탈을
야 외부를 인도가 부강한 미드 티여 구라파쥬의 웃
듬 우리나라 중국의 장수는 백성을 고향을 칙하
고 먼 나라 갈듯이 업스니 양인즈치 공스를 베풀고 저

물을 만히 가져 대양을 건너 무역 흙자리를 구하고
금에 오 히려 그런 사물이 드문지라 물해 가는 길은
노노만 고모는 근원은 노노감하고 그 육이 넘려는
건 뒤 타일의 백성이 궁관하고 저 물이다 (여) 구원
호기 주 못 어려울지라 그려 나임의 통상호를 능히
금치 못 호였시 나오 직스스로 상교의 수무를 다스
려 그 출입호는 수효를 헌실호야 더 브러 결위보와
서로 더 당호드름이라 중국의 석외양으로 나가는
물화는 면서 와 향대로 가장 큰 도전을 습더니 이제
인도 등처의 셔다봉나무와 차를 심어 소출이 중국

으로 방을 흐 미양인이다 그곳의 가미매 흐 는고로
근리의 중국을 해 능히 쉽게 풀리지 못 흐니 후일에
혹이 것 콧츠 일 흐면 중국의 취리 흐는 근원이 분히
지지 아니 흐 랴뭇 당 헤디 방판으로 흐야 춤 농민을
널리 친 흐어 산곡간 공한 흐 드 히봉나무와 차를 만
히 심어 부지 러 니다 스리게 흐 고 설을 혀고 차를 만
드는 벙을 더 옥뜻을 각물히 흐 야 광구 흐리만 일심
상호 흐지 나는 채잇거든로 장 흐고 상수 흐 기를 널
니 흐여 힘써들의 공한 흐 드 히 업고 농수를 실시 흐
지 아니 흐게 흐 즉 노출은 더 옥만 죠 손 가히 감 흐

거시니 침자 총 다 갑 술 전 한 이 화 리 물 화 구 한 라 오
는 절을 높 나 한 라 나 라 의 밧 치 는 세 전 만 다 홀 뿐 이
아니라 백성의 재물이 또 높 나 한 라 한 지 시 오 높 물 여
중국동남각성의 빈학 를 암 하 심 이 고 서 부 이 션 는
류축을 만히 기리 느 고 만 일 거 거 교 동 온 드 리 를 뻐
양포와 우단도 단파전파옹수등 물 의 급 리 얼 인 이
가 하백인이 향 을 단 이 얼 거 시 모 도 왕 린 한 부 비 물
덜만 한 거 그 갑 시 외 양 이 비 는 면 갑 절 이 천 한 교 리
는 갑 절 이 나 후 한 리 라 혹 이 이 심 한 리 거 거 로 뼈 사
름이 광령 을 되 시 한 라 져 은 백 성 이 라 뚫 나 일 자 두

려호다호티모로는 말이 우단모단등물은 본리외
양의 쇠나는 거시모 백성의 일의 구비호미일수니
의 방호야 힐호면 족의 끌리호는 친이 난호일지라
이제민월드사람이 성가파와 구금산 모다명 각 쳐의
장수호는 재팔십만인의 나라지 아니호고 그 종의
혹우거호야 이 밖에 한을지니 떠 후영국 미국호적
의 봇쳐시나다대 청년호를 밟들여 대청이 복을 넘
으니 족히 교해먼니 멋초를 징집할지라 만일 중국
이령스 등판원을 갈히며 보니 어현 족히 무휼호고
은연 이제어호즉 중국사람이 멋부미잇고 두려울

비업석장스^호노획척이더옥공교^호야모롯외양
물화물우리화인이스^스로운전^호야오고중국물
화물우리화인이스^스로판단^호야질게도모^호기
물힘쓰고그리로온천세물^죽장^호즉^양인미로구
이나아모미^노노^노쇠^호교화인미외양이나아가기
물^노노성^호면^면장^호초나라히부오^호교^비성^미유여
홀효령^을가^하다^자점^두고^어들^거시^로되^념려^되는
바^노화^인의^모움^이양^인지^치전^고치^못^호교^중원
제^물이^양화^지치^중성^치못^호야^혹영^축이^이시^면
문^득곳^쳐도^보호^기를^성각^호리^니오^직저^상자^인

이 그 리 권 을 잡 아 릉 낙 흐 기 률 시 통 이 흐 야 의 뜻 중
국 과 셔 국 이 가 하 흠 치 헬 일 을 었 지 는 야 판 단 흘 고
흐 떠 중 국 의 스 스 로 오로 지 흐 는 리 를 었 지 흐 야 뻐
설 끌 고 흐 며 셔 인 이 홀 노 당 치 는 리 를 었 지 뻐 난 홀
고 흐 야 이 세 가지 를 노 치 아 니 흐 주 리 권 을 가 하 회
복 훌 지 라 오 직 셔 인 이 저 물 이 만 희 으로 양 수 를 잘
흐 야 리 로 오 미 앗 노 바 의 눈 닻 도 와 나 아 가 느니 만
일 화 인 이 도 흐 광 수 를 베 를 고 장 수 이 비 를 지 어 힘
뻐 더 브 러 주 웅 을 단 도 와 상 고 를 써 벼 물 가 를 감 흐
고 본 전 미 썩 기 면 형 세 반 드 시 피 츠 의 휴 손 흐 야 국

가의 유이 험비 업스니 그 폐단을 구하고 주호진리로
로 미스근원을 열지니 공부를 상고호진리므로 장
강너하가 구라파의 뇌인하와 다라장은 모둔사람
이다 향선호는 질을 벼려주니 각국의 난호벼꽃치
엿고 미국의 미서석비강은 비아나는리를 본토의
서독단호네일국의 전죽호야꽃치엿고 파서국아
마성강은 바로서 히서발원호벼파서국으로 드러
가나물풀시난호벼의파타이국파위너석립국으
로 흘리모혀드러가파서국수천리를 빼쳐드러가
나랫적의 향선호는 법세우기 물정호는 사룸이 이

시대정부의 서막았더니 그 후의 상파소 죄호기로
이전 음령을 업시호야 상고단니는 철을 절나호니
조종호는 원세를 스스로 쥬장호야 태인의 계발니
지아니호 엇시니만 일중국의 장장호로 거순서호
로 민산파마산으로 인도호야 동으로 창한로드러
가니 큰원이 멀고 길게 훌데 미국의 미셔서 비강호
고파서의 비호비아니라 이제 장강이 이천수 빅여
리의 양선이 왕리호야 실노큰리를 엇교호반작쥬
호네 주못분호지라 못당히 중국파서국의 약도호
한령이 층기를 기드려 넷약도를 끗치고 별노식법

을의로 헛야미 뜻서인의 양강으로 단서는 화륜선
을 모다 갑슬죽고 수모며 각쳐의 물화싯고 단서는
슈로의 인호야 닷토와 싯고 갈마드려 참호는 쟈를
침자호야 벳규례를 회복호즉서인이 감히 이론을
못할지시모도 장강상하에 레담을 걸고 두어돌마
다화륜선을 타고 단서며 물가를 알아보호게 할지
시니 이즈 치호즉 양강에 양고선의 리가 다 중국의
도라울거지 오취리호는 권세를 놓고 단호리니 당도
호제나라를 위호고 벵성을 위호노년위의 호면서
의 벼치이시리라

以是為子之母也。子亦以是為子之母也。故曰：「我見其母，未見其子。」
子見其母，未見其子。故曰：「我見其子，未見其母。」
子見其母，子見其母，子見其母。故曰：「我見其子，未見其母。」
子見其母，子見其母，子見其母。故曰：「我見其母，未見其子。」
子見其母，子見其母，子見其母。故曰：「我見其母，未見其子。」

론기광

금인동대교지 담호는
해금류하 루호 미하

대여금은 동현이 나는 거손은 본색상에 빠이기를
위한 미구만 일하라고 쳐치 아니한즉 하늘이 셔도
헛도 이 미저 물을 뇌시 미오사람의 켜도 보화를 드
히파려 두는 적시파 이제 국가에 부강한 기를 빼는
고 백성의 리를 떠로로 몰자 되호진 터니 희석나는 리
를 쫓는 야도 다는 미암고 빠도 마르지 안는 거손 모
즉 기념하는 일인 대명국이 도를 상고 헌건이 중국
투어성에 미인 듯 만못한 터등히 현하에 잡부되고
수 히이 뒤례로 리업는 자는 대개 격치지식잇션 능

히 쟁은 동굴에 깊이 숨을 아라 쳐쳐의 다 이시 미 드
흘인 흐 야 멋 담 흘리지 어 범위로 시 땀 흐 야 카 여
네 카 소비를 앗기지 아니 흐고 어려온 거술 카 탄 치
아니 흐 야 일인 즉 반 드시 되 케 흐 고 물건 인 즉 각 각
쓰는 터 못 갖 케 흐 머 카 리를 흰 드려 인력 을 터 신 흐
야 공 려 흘리 려 케 흐 고 려로 거 려의 희
거 려 단 나 케 흐
거 려 두 고 화 른
를 흰 드리 슈 운 흐 케 흐 야 부비를 려 려 케 흐 노 고로 능
히 아름다 온 리를 무 궁 흐 케 취 흐 미과 중국에 쟁은
동렬나는 뜻을 상고 흐 전 터 운 남의 셔는 동이나고
산 셔의 셔는 터 이나 고 호남파 강 셔의 셔는 미 색 카

나고 제로와 행양의 셔는 연이나고 떠만의 셔는 암
초가 나니 이 두어 뜻은 사람마다 알리실 상은 음은
동급파색란나는 듯히 각성각처의 다잇시 더디 중
에 천심파품지호부와 칭절교하와 구당이 좁고 넓
은 거손사람마다 아지못하는 바오미제알고 지덤
하는 거시불과 만분지일이며 지덤호터이 임의 드
러나 아는 뜻이라도 무손빗치되는 줄아지못하는
도 금하고 기덤마니 하는 뜻이 만희나 바회틈의 깁
히 감초여드러나지 아니하는 거시독언일줄아지못
하는 내못당하는 죽이 알리행양수금은 더듬는 는 범금을
하는 스승이라

물 청 흐 야 범 데 모 탐 지 흐 야 보 와 려 실 이 앗는 줄 알
거 든 흑 이 론 흐 야 백 성 드 려 치 라 흐 고 판 가 이 셔 츄
셰 를 흐 린 지 흑 히 부 이 셔 이 론 흐 고 데 문 을 삭 어 쥬
어 민 간 이 셔 친 기 를 정 흐 야 장 스 흐 고 백 성 이 데 문
을 맛 타 차 지 고 물 화 를 끼 여 가 는 전례 를 이 방 흐 야
드 히 잊 는 바 를 채 흐 야 셔 상 이 업 는 거 술 이 바 지 흐
는 거 시 계 칙 이 미 의 셔 편 흐 거 시 업 고 키 렴 흐 는 묘
리 노 진 실 노 팡 스 를 미 드 려 니 와 총 판 일 을 쥬 팡 흐
그 판 원 이 라
이 친 히 탐 지 흐 야 려 실 이 안 연 후 이 디 셔 를 인 흐 야
못 당 흘 도 리 를 지 이 서 후 천 수 하 셔 국 법 을 빼 거 나

혹전수히 중국법을 빠거나 혹중국파서 국법을 석
거쁘거나 슈구의 원근을 보며 구령이 파는 절을 숨
혀보며 되는 소이연을 험실하고 팔리나 잘 살을 료
량을 뒤 공심업는 자를 맛져 빠지 말며 엄밀하고 각 박
히 시기지 말며 판세를 쪼잖을지 말려 냄알을 하는 양
군의 죽자를 후히 죽지 말며 시니 셀법지 초에 용되
나가는 거손이 시위드러오는 거손업스니 억군들
의 속가죽노의에 일보는 사람들은 고로 게 월록을
박히죽다가 염리를 어든 후에 즉시 웃치되어 즉 몬
져 영구준행할법이론을 약설명을 곳의 서일년

을 두고 치부^한야 염의 서나는 것과 팔년나간 수효
를 회계^한야 본전파리전파세전^을제^한외에 남는
거슬가지 고 십분에 이문은 창^{임을 쥐} 양^집 쥐를 쥐고
십분에 모문은 할보는 빠려사람^이 고로^게 난호와
료리^한케^한고 십분에 삼문은 빠려^한군^을 상^주고
미년에 나는 수효를^거로^한야 염집벽^상에 봇쳐서
외로^한야 음^한지 보고^한지 아라^의 심되 미^주 음도
업^게 한^면 거아^한이^있는 모^도사^한이^후 일^노 망^이
고로^로 앗^셔 상^해 일^신이^되며^게 얼^기 한^미 엄^술 거
시^이 양^군이^평 전^맛로^는 폐^아 죠^엄 고^리로^온 츠^원

은 점점 만회 라 각성 각처에 셀시 흘 각법을 사실
흐야 보전되 혹션시 흘썩에 잘못 흘미이 시며 혹중
도에 폐 흘기도 흘며 혹리를 보미 적기도 흘며 혹본
전이 럭비 빼노자도 잇스 몬다 엇지 미뇨 그 무절을
미루여 보전되 하나 흔팡시 렴리 잡기 를 진려 하못
흐고 키덤 흘기 를 잘 못 흘리 말미 암아 시며 하나 흔
총판이 지위는 드고 남의 말곳지 듯 기를 경이 히 흘
야 낫 낫 치 친히 술 혀 보며 실상으로 힘을 드려 쥬장
흐지 아니 흘리오 그 러처 아니 흘즈 친압 흘사 름을
전 슈히 맛지 떠일보노 사 름의 농가 노후 하 죽여 얹

군을 박 되 흐 빠 줄인 이 것 거 아니 흐는 고로 확금구
덩이가 장 춤문히 진다 흐 고 허 무 흐 말슴으로 엊어
보 흐야 메우고 봉 흐 기를 칭 흐며 혹 땅의 석나는 거
시 업스 비 땀을 흘 길이 암다 흐 고 망령도 이 일금 라
리 와 폐를 아지 못 흐고 상해 서로 지며 본전만 업시
흐 고 땀여 을령지 흐니 미련폐단이 만 흔지 라 이는
운남에 셔 땀이 늙어 산이 빠다 흐 눈말슴이 흥상이
시 미더 중국 백성의 혼이 뿐 는 거술 가량 흐야 보 전
뒤 웃듬이 동파연이 너대 개각성 춤국 주 흔 흐 에 셔
주 흔 흐 기를 령지 흐 고 간사 흐 백성들 미잇다 감돈

을 목^을 떠 치명^을 짓기로 돈이 점점 업^업 석^석 저^저 일^일 용^용 이^이
나^나지^지 못^못 흘^흘 고^고 그^그 버^버 쟄^션 음^음 은^은 이^이 앗^앗 고^고 그^그 버^버 쟄^션 석^석 한^한
파^파 텔^텔 이^이 시^시 나^나 대^대 더^더 석^석 한^한 파^파 텔^텔 은^은 비^비 록^록 리^리 물^물 어^어
미^미 다^다 른^른 땀^땀 에^에 바^바 교^교 흘^흘 려^려 족^족 등^등 이^이 이^이 시^시 나^나 부^부 두^두 불^불
기^기 땀^땀 흘^흘 기^기 는^는 실^실 삼^삼 석^석 탄^탄 이^이 아^아 니^니 면^면 능^능 하^하 치^치 카^카 대^대 교^교
동^동 트^트 러^러 쓰^쓰 를^를 운^운 동^동 흘^흘 지^지 못^못 흘^흘 고^고 정^정 텔^텔 이^이 아^아 니^니 면^면 능^능 하^하
치^치 계^계 를^를 짓^짓 지^지 못^못 흘^흘 는^는 고^고 로^로 대^대 석^석 한^한 파^파 텔^텔 땀^땀 을^을
설^설 시^시 후^후 로^로 빛^빛 허^허 인^인 흘^흘 야^야 양^양 창^창 대^대 흐^흐 릴^릴 지^지 은^은 즉^즉 흘^흘 노^노
더^더 옥^옥 신^신 카^카 흘^흘 고^고 비^비 와^와 율^율 위^위 릴^릴 지^지 은^은 즉^즉 흘^흘 노^노 더^더 옥^옥 편^편
흐^흐 떠^떠 밟^밟 갈^갈 고^고 깁^깁 뜯^뜨 는^는 치^치 계^계 를^를 지^지 은^은 즉^즉 흘^흘 노^노 더^더 옥^옥 풍^풍

호나 각국이 드디어 부강호기에 나온지 라서 인들
이 나온다 일국 성쇠를 각량소산으로 령호다 호는
말이 진실도 허언이 아니로다 드로 나래서 각처의
온갖 땅이 제여쓰기를 거의 다 쓰여서 미종국의 소
산이 부요호를 보고 져마다 부려워호다 호니 거리
비고 험호지 아니호야 타국 사람들이 부려워호게
호는 거시번통호야 치여 뻐국용을 깨워호게 호는
것과 엇더 훌고 방음의 히스승령호나 청신을 가다
듬어다 스리기를 도모호찌의 모릇 국가와 백성의
게임이 훌얼이면 츠데로 거침호야 셔국 범법이 방

호야 빛지 아니 미업스 되그려나다 만석인 이리제
짓는 꿈만 비호고 셔국의 저물다스리는 꿈이리비호
지 아니 흐니부 흐미 아니며나라를 보전할질이업
고 창호미 아니며부 흠을보전할질이업스니부강
을 흠지 꿈하느니석로건져성공한미잇슬거시니
듯한 능각쳐드방판의케신치호야설금호곳을되
설이지성함호후금을폐프리상고를부고, 린석국법
에 이달호고금한달기물잘호는자밀하오로청호
야장인을동독호케호고 각영군수를분발호야일
례로리게호(법)가히 큰일을미봉호야무궁호저물

근원을 열거시 모도 가히 찬사호색 르임시 호야 양
리의 숨은 근심을 달나라 기념지 초의 모로 미치거
를 쇠 준비 흐고 광수를 청호 편경리 흠사 르을 어
드 면스 서로 온당호게 되리라 공예이 호번호를 냉
려호는 채잇거든 그모 암을 굿거니 훌도 리를 성 각
흐며디 가석의 흑호 채잇거든 묻져 그의 심을 업게
흐고 실상암을 이에 구호야 모리도록 변치 아니호
즉큰 효험을 차하 일을 거시니 우호로 국가를 위호
야 부강호를 일우게 흐고 아리로 빛성을 뛰워호 애
리로운조 되호 게 흘거시니 진실노시 폐를 구원호

큰일이오 셰상^{서상}을다스리는 죠흔계칙이니 가히 강
론치 아니 험 랴

론화 거

화론
론거
마라
거론

대더물에는 비물즈로 흐고 류디에는 술위를 주로
흐느니 이는 인성에 주연자리라 셔인이 어듯을은
본 흐야 정긴 히구 흐야 물의 논화론선을 짓고 류디
의 논화론서를 지어 왕리 흐기 흐기를 편 흐게 흐고 유운
흐거를 리롭게 흐니 진실 노조 고이 리로 업고 노바거
이 흐제 되라 중국디 방이 팡대 흐니 진실 노그 범을
의 방 흐야 화론서를 짓고 텔로를 쌓지 아니 흐즉상
게 만리나 되는 민질의 엇지 능히 요식을 속히 통흐
야지 척을 어찌지 안케 흐리으 크게 빼면 군량을 슈

운하고 군수를 빙자하나 과학의 힘으로 적게 빙자
면 상고자 물화를 무역하는 박성의 계리편을 계획
해도 신식을 전하는 마자체 될가 neckline 할리업고 급한
일의 군수를 빙자할 때 그 끝할 가는 심술비업고 는
를 빙자 중국은 토옥 는 미구라화 주에 감절이 나 는
다만 산이 삶을 고질이 머려 슈운을 기죽 난을 나 놓
인들이 빙자 이런 각계를 지을 줄 아지 못한 빙자 토디
소 출을 인호 양제기 향기 향기를 빙자 출미 쇠유 오목
을 심어 일왕을 이바지 흘드 름이 라 물화를 지운 는
는 거제 운편을 고 물화 유운 는 갑술 험을 게 는 면

온갖침은 거슬가지고 즉각 뇌이 이곳에 유여호거
스로 쪘곳의 부족호거슬구제호면리를 어드 미중
상몇갑절이 될거시 나수년후에 민간의 쪽축호거
시조연요족호야 그 공효를 심상호리비기지못호
비라혹유저와한제에우연이편호된제양이잇션
도도호능히량식을유운호야백성의 곤호를구제
흘만호내넷적의 미국서부려산교일에 허변이만
코너르기한량이업더내당도지인미수년전의화
룬거와털로를셜시호야갓가이동준드홀통호고
먼내음산을접는내일노말미암아온갖물화를통

을 고상과 모험을 떠민 개느러십 할 만호에나 그니
이 노부강 훌륭한 효험이라 훌륭하니 라구나 국파 범국
이셔로 빠호다 차라국 이 범국 을 봐 권법자 노덕국
군식 범국 군수 보다 나은 줄이 아니 라도 훌륭치션
파회 훈자로 행군 훈기 를 신속히 훈 미라 량국 이 빠
호기전에 덕국 제독 이 범국 수신 드려 말 훈 야율 모
리만 일蹶 호고 져 헤거든 아국 이십 수 일년에 떤방
디 경으로 군수십 만을 모호고 군량마 죄 죄를 다준
비 흐리라 흘러니 그 후에 파연 그 말터로 흘 야크개
승첩 흘었고 전의 영국파 아라 수국 이셔로 빠호다

가아라스국이문드래^하영^으시나기시에아라스국
이만^을들^면마를^리져^인는^을지^여노^래를^히아리기
어려울지라량^국이셔로빠호미^어나라히^군^스
를^리민^히되^기히속^히하고도^만히^한고^쟈를^술혀보
금^금부를^가히^침자^호지^라만^일금^금이^니제^을을^금
는^리금^금로^금수^리군^스를^쉽게^모회^지못^할고^군^장
을^쉽게^수운^을지^못호^뿐아^니라^거죄^창황^호야^군
령^이위^급수^를면^치못^할리^라이제^아라^스국^이거
계^짓기를^정긴^히할^리나^만일^져의^나라^로봇^상중^국
디^경바^자렬^로를^바랐^다가^일죠^에군^스를^쓰면^불

과 반원의 가히 중국의 드물출려니와 이질이 업손
즉 군수를 도발하고 군량을 슈운 희비 쇄월만 허비
하고 빛쳐다 보 하지 못한 야역령이 임의 디경에 자
날거시으 영국이 만일인도 억렬모를 바라운 남편
방디 경아지 온즉 험군을 지불파 모일에 가히 드달
흘거시니 말슴 이미에 빛 츠미었지 송구 흐를니 거
리오 대더털로를 설사 흐는거시 방비 흐는거 유익
흐문잇교해로울은 심은 업수니 중국의 셔이제 완
완을 일노 바려 두기는 결단코 못 흐리라 그려 나털
로를 몇당히 황성으로도 회쳐를 숨고 여리질을 난

호와 각성으로 통하는 바가 계획되었으나 이 석로통을
고수 미를 석로양호하게 했던 고수인 가와문묘의 다다
칠리 있거든 못당히 절을 봄과 피호하게 했던 거의 국
가 대수를 저희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오 각성에 차
우 쳐잇는 고열이 도도한 술 위 단정 절을 닦고 말게
메는 술이 둘만 하자만 호야 앙리 호며 수운호에게 호
되화륜선의 종선 두루 시호며 상비는 비록 만호나
리로 오마 심하니 그 진실 노동히 이 말판비호 즉
수로의 노화륜선이 있고 류디의 노련뢰잇석일이
잇손 즉 척옹호 기축하편호 교일이 업손 즉 상고의

게 심히 유익^{유익} 했^하리니 그리로 모미^{모미} 업더 훌고 대더 련
하일은 덧^덧 덧^덧 훈^훈을 직회^{직회} 고 변통^{변통} 했자 아니 훈^훈 즉^즉 공효
물도로 훈^훈 기 어렵고 시세를 안^안 훈^훈 야^야 및 ^및 당^당 훈^훈 범^범 을 지
은 즉^즉 리롭^{리롭}지 아니 훈^훈 비업^{비업} 훈^훈 니^니 셔^셔 국^국 현^현로^로 를^를 상^상 고 훈
건^건 터^터 쳐^쳐 음^음의^의 는^는 혹^혹 수^수 십^십 리^리 혹^혹 수^수 백^백 리^리 를^를 시^시 작^작 훈^훈 었다
가^가 그^그 후^후에^에 련^련 속^속 훈^훈 야^야 일^일 든^든 거^거 시^시 나^나 만^만 일^일 경^경 바^바 부^부 족^족 훈^훈
가^가 넘^넘 려^려 훈^훈 진^진 터^터 몬^몬 져^져 요^요 긴^긴 훈^훈 질^질 에^에 죠^고 마^마 치^치 시^시 험^험 훈^훈
야^야 백^백 성^성 으로^로 훈^훈 야^야 품^품 문^문 견^견 에^에 임^임 어^어 유^유 악^악 훈^훈 알^알 게^게 훈^훈
연^연 후^후에^에 상^상 고^고 물^물 를^를 네^네 이^이 어^어 민^민 든^든 러^러 츠^츠 레^레 로^로 미^미 루^루 여^여 널^널
게^게 훈^훈 거^거 시^시 나^나 이^이 제^제 셰^셰 속^속 조^조 운^운 훈^훈 기^기 를^를 바^바 다^다 길^길 노^노 향^향 훈^훈

게 호미 전 보다 심히 셋 르 되 당수 지인 이 바다 길이
교요 흐지 못 흐 물념려 흐 야 하슈로 슈운 흐 눈 넷 제
도 물회복 교져 흐 노 인력'을 코 켜허비 흐 야 하슈
로 슈운 흐 노 냄을 회복 흐 거시 이 인력'을 옴겨 털
로를 셀 시 흐 는 것과 엇더 흘고 선국에 셔 근리식 규
식'으로 민 토털뢰 이 시 내 빼고 한주 히 남죽 흐 고
신 흔긋 타 여 평령 흐 게 훌거시 임고 아리나무를 셰
위 시령 미 뜻 흘고 그 우한다리를 노하 털로 뺄 데의
눈다리를 털고 아니 뺄 데의 눈다리를 저두게 흘
니 서국에 서 미 릇 군수를 뺄 데의 알노 써 금 흘구

제 허리 오족 런모를 다스리는 거시 창 졸간에 가히
관비 치 못 훌거시 오도 부비가 적지 아니 훌니 충국
이 만 일지^이 히 이률이 방^방 야 향^향 훌면^면 가히 불우지 번
음^음 방^방 훌리 라 흑^이 나를 헐란^한 흐^흐 흐^흐 훌모^모 훌로^로 를
린^린 두^두 렬^려 다^다 가^가 설^설 스^스 라^라 낙^낙 에^에 셔^셔 침^침 범^범 헐^헐 모^모 흠^흔 두^두 어^어 삽
시^시 간^간 에^에 드^드 러^러 오^오 련^련 졸^졸 디^디 에^에 멋^멋 쳐^찌 방^방 비^비 훌^훌 지^지 못^못 훌^훌 거^거
시^시 그^그 해^해 를^를 가^가 허^허 이^이 희^희 말^말 훌^훌 라^라 훌^훌 디^디 모^모로^로 는^는 말^말 이^이 헐
뢰^뢰 아^아 국^국 디^디 경^경에^에 앗^앳 셔^셔 서^서 임^임 이^이 로^로 조^조 종^종 훌^훌 거^거 시^시 그^그 엇^엇
려^려 려^려 병^병 이^이 웅^웅 쟈^쟈 쟈^쟈 훌^훌 비^비 훌^훌 가^가 헐^헐 려^려 훌^훌 리^리 모^모 시^시 헐^헐 야^야 성^성 각^각
흘^흘 라^라 구^구 과^과 각^각 국^국 미^미 쇠^쇠 디^디 에^에 드^드 러^러 오^오 련^련 졸^졸 디^디 시^시

바다로 올거시니 진실 노년례 앗거든 바다 길이로 엄
금 훌거시 오럴로에도 대명을 빙발 흘 애지히 미무
어시 어려모리 오만일아라스 국사 름이 난려 훌진
뉘셜시 흘 바덜로는 모직산 우성파 셈서 감육성 뇌
디에 잊고 변방까지 아니 흘 야시니 져의 모 촘너바
로 모라드러오지 못 흘 리라 씨석인의 게드로 니니
로. 티련모를 셀시 흘 미다 셋가지리 흘 미 이시니 어
든 바슈운 흘 부비에 각항왕 도문례 흘 외에 나마
노가히 국왕을 도울거시니 리 흘 일비하나히 오우
연이 뻔방에 금흐얼이 앗션 군수 말도 빙발 흘 고군량

을 슈운 흐리니 아총에 발 흘 야 저녁에 고를 거시오 평
시의 는 작성의 셔 모죽 군수를 조련 훌뿐이 모도 발
흐는 일 수 뜰가 하침자 흐야 감 흠 거시니 그리 흘 일
이 둘 허 오 입이 험 험 이 시 미 각 쳐 음은 동 험 나 노 둘
다 카 담 흘고 카 여 뇌 미 슈운 흘 노 부 비 노 데 냉 나 고 팔
나 가는 월을 속 흘니 그 리 흘 일 이 셰 히 모 상 고 들이
흥 판 흘 야 슈운 흘 기 경 편 흘 미 무 양^양은 노 왕^왕 쟁^쟁 흘
고 쇄 죄^재 은 놀 노 데 흘리니 그 리 흘 일 이 죄^재 히 모 문 셔
물 전 흘 기 빨 나 렬로 앗 는 곳의 눈 양^양 참^참 을 가 하 혜 야
려 릴 거 시니 그 리 흘 일 이 다 셋 시 모 히 탐 속^속 지 인이

의 후^호하고^한려^려호^호야^야감^감하^하거^거한^한치^치못^못한^한방^방자^자는^는쳤
재^재는^는경^경비^비밀^밀구^구회^회호^호기^기어^어립^립고^고둘^둘재^재는^는효^효번^번의^의리^리낮
출^출아^아술^술가^가투^투려^려호^호네^네비^비밀^밀라고^{라고}술^술위^위밀^밀먹^먹문^문서^서물
전^전술^술고^고효^효식^식을^을통^통호^호는^는등^등수^수에^에질^질이^이임^임의^의편^편첩^첩호^호즉
셔^셔의^의무^무라^라업^업을^을일^일우^우미^미반^반는^는사^사만^만희^희리^리라^라호^호이^이는^는
그^그리^리치^치아^아니^니호^호거^거지^지렬^렬로^로밀^밀비^비로^로센^센시^시호^호여^여시^시나^나비
논^논암^암호^호비^비입^입고^고도^도혈^혈로^로것^것히^히말^말게^게메^메는^는술^술위^위안^안나^나는^는
길^길이^이이^이시^시나^나술^술위^위모^모는^는재^재도^도호^호자^자히^히성^성애^애호^호만^만호^호고
문^문서^서밀^밀전^전술^술고^고효^효식^식을^을통^통호^호는^는일^일이^이전^전에^에비^비교^교호^호급^급
속^속술^술기^기는^는호^호거^거나^나와^와인^인호^호야^야이^이무^무리^리밀^밀찌^찌게^게되^되면^면무

어지 백성의 거해로 오리오판원지 어백성에 성지
종치못 흐야 판원의 무신 흐을 미양 두려 흐느니만
일민간의 셔털로 룰맛라 짓는 채 이시면 그 슈운을
노 셰전을 드(영)이면 흐야 쥬고 오리식씨는 리전을
아오로 쥬고 만일판자에 리가 부족 흐거든 미년에
본부연결의 셔바다 총수 흐야 신을 밟히고 장스길
을 뉘르게 훌지 라쳐음의 충국의 셔화를 선짓기를
의론 훌색에 모도 혀시비 훌기로 분분히 훌야 거의
충지 훌게 될네 니다 험이 당스지인 이굿 셰게드러
흐하고로 이제상고 셔파태로 실은 비달노성하고

로운 물질의 고정화에 대한 대처법을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책은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학술 저작이나 특허 출
원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글로 평가되어 대중 독자
에게 소개되는 경향이 있다.
본문은 대체로 철학적인 주제를 다룬 책으로, 특히 윤리학과 철학
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제작 당시의 학술적潮流에 따라 기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책은 고정화된 물질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면에서는 학술 저작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대체로 철학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내용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철학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모를 발견해내는 독자가 늘어나고 있다.

스로 쓰인 후에 야 힐하고 낮치는 천세를 뇌임의로
조종하며 공비로 빠는 거사 외국에 나가지 아니할
게 흐지니 감자 우감 흐야 정 흘스록 더우정 흘게 흘
면서 익증국부 장 흘계를 이이 흘번드 는 데 이 시리
라

론단보

면 거술의 론 흥 노
거선이로 보는
마라

대더세상에 지극히 시통하고 지극히 속호야 홀연
이갓다가 홀연이오는 채대개 번번이 들통거시업소
니번리를 빙쟈호야신식을 전호즉 그색으로 물가히
알지라 넷殖民에 미국선비학업을 죄하호며 성각을
집히호야 격치지학을 잘호식번번이잇쓰는 법을 어
더세상에 뽀기를 리롭게호너이는 련치선에 말미
암아시작호리라미제태서 각국에서 다련치선을
베프러산이가렸던지 바다히락혔던지 물론하고
경식간에 쇼식을 통호나진실노고 음에 업는 거이

호 물 열고 죠 화로 측 량 치 못 훌 비 밀 훈 물 린 셜 훈 미
라 량 국 이 흔 단을 얹어 상지 훌 제 린 죠 셜 을 힘 날 어
군 정을 천 훈 즉 린 죠 셜 잇는 쟈 는 만 하니 죠 고 업는
쟈 는 만 하 꽤 훈 머 상교 들이 물 화를 무 역 훌 제 린 죠
션 을 빙 쟈 훈 야 시 셜 을 서로 통 훈 즉 린 죠 셜 업는 쟈
는 흥 샹 굽 짚고 앗는 쟈 는 흥 샹 낙 훈 훈 니 부 강 훈 게
흐 는 공 이 여 쟈 말 미 암은 지 라 영 국 이 로 이 론 훈 지
라 도 린 죠 셜 을 나 라 익 셜 설 시 훈 옛 더니 상교 훈 는
빅 성 이 린 죠 셜 을 뽐 고 쟈 훈 는 쟈 공 비 를 거 두 어 도
로 밧 치 고 미 년 소 입에 린 셜 국 던 죠 셜 을 쥬 데 라 에 드 는

잡비를 제하고 그나마는 국왕에 차모여 본국에 군
정비밀을 알바이지 면문전을 허비치 아니하고 능
히 쇼식을 통한니 그리로 모미었지 널지 아니하라
그러나 이는 오히려 려태평시절을 말한미여니와 만
일 랑국이 섬로 빠화제이 할계교를 씨여니 각 기물
결단홀제연기선이 더 옥요 진할거시 되니 뱃선에
보국파 범국이 섬로 빠홀제 보국사람이 할군하는
곳에 련기선을 다 베풀고 범국사람의 베풀바련기
선은 다 보국사람의 문허바린비된자라 이려므로
범국이 패하고 보국이니 겟는 나태더 중국은 누방

에도 읍을 엿서 미주남으로 가려는 면상에 만리오
다른 뒤 도수 천리 상계 되는 뒤 만흔지라 봉화를 혀
며 유조리 하는 군수를 두나 굽을 일이나 저유 보호
뿐이 오 말을 험히 통할 길이 업수며 군수를 배포
려 호령을 전하나 떠나 놓지 체해야 그릇 되는 일이
만히 나 히번요 긴 호곳의 조리 도모호 고대포
를 두고 또 천선이 업수 즉로 뒤도 도호 외로와 구원
이 업술 거시 오 천선 만잇고 천지선이 업수 즉 천선
도 도호 구원호 기를 빛쳐 못 헬거시니 만일 려 병아
나의 천선둔 곳을 알고 군수를 합해야에 위빠고 칠

제련지션의 도통지 흘미업스 면 각처의 쇠엇지 능
히 짤니와 구원 흐리오 전션하나 히실패 흘면 소비
도 불요 흘거니와 일노인 흘야 각처의 쇠다 탈지 흘
지 라 츄로로 함성아지드러오 능정도를 혜아리 전
리 모당히 몬져바다 밋히련지션하나 흘세위량강
파모 송등쳐를 통흐게 흘고 일노 말미암아민중파
전강과 월동에 바다를 통흐고 율이 어든 방벽이 게
신척호 마디형^{弓形}고 혜마려 초례로 거힐흐게 흘즉경
성미비록 머나 엉연이 지척즈트리라 혹이니 린
린지션을 셀시 흘면 진실노 유익 흘거니와 경비파

히만히니판출을기쉽지마느니라엇지홀고나는
홀오리면거션을설시는곳이바다및힐잇손즉
어렵고그갑시조못만히들여니와평디에이시면
져이쉽고갑시도는경우는거시내창기호기가어려
울줄리며이아나대스판두에실노대리를마들거
시모전에런거션으로효식을전홀제으히려외국
을주로뻐시나반드시번역홀후의야알리니이제
는던거션에식로는줄이잇션중원을노끗쳐뻐시
네전의비는면더욱편홀지라만일비밀홀일을전
흘진리던거션쥬장흐야다스리논쟈도오히려마

지못할거든호를여타인비었지알나오임이루설
흘남려도업고뇨지체흘폐도업스리라이제서인
이또다리풍던거션고를창기흐야뇨식을전흐게
흐니더욱심상치아니흐지라만일왕국이의론을
굿세게흐야거행흐게흐야그쁘기름들게흐며도
상고의계붓쳐요식을전흐게흐고노입을침쟈흐
야슈셰흐즉일이년간에반드시쳐움에설시흐런
노입을충수흐거시오그후에슈셰련면부절흐야
리로오미무궁흐리니진실노나라의유익흐고백
성의개편흐요긴흐스위라대더화륜선파양창대

로 드는 말을 중국이 히코쓰 미리 해상반도에 지어낸
거선이 아니라 무해한 나ട지 드러시 험한 나드 아니니
라

나드는 말을 중국이 히코쓰 미리 해상반도에 지어낸
거선이 아니라 무해한 나드지 드러시 험한 나드 아니니
라

론 기 고

발 출 기 책 흥 야 나 르
하 을 아 룬 흐 미 라

대 더 나 라 이 부 셰 는 백 성 이 게 서 나 고 백 성 이 머 는
거 손 토 디 의 석 나 는 내 이 눈 고 음 에 밟 고 자 못 훌 리
치 오 성 인 이 너 쿠 신 바 럭 이 이 시 면 이 의 사 름 이 앗
고 사 름 이 이 시 면 이 의 토 디 앗 고 토 디 이 시 면 이 의
저 물 이 앗 고 저 물 이 이 시 면 이 의 희 이 미 앗 다 흘 시
나 이 제 희 님 청 평 흘 뒤 각 쳇 의 둑 은 밧 치 일 망 무 제
흐 야 흘 만 조 우 흘 누 연 고 는 저 력 이 업 선 그 걸 뿐
아 니 랍 실 노 사 름 이 업 손 연 괴 내 대 개 평 화 를 지 난
网络传播

법을 회복하고 져 훌진 터 타쳐 백성은 그 말에 기
척 능게 훌지 라 이제 민팡은 성에 흑빈도 히 업고 모
히려 노는 백성이 잇셔도 모 훌일이 업스 으로 히 외
에나 가고 공스리 흘나가 하기 책 훌 밟치 이 시면 라
향에 류리 훌리 업슬지 라 외양에 나가라 국사람의
게업 슈하 물밭 뉴 니 엇지 묵은 밟출 밤히 사회 흘 야
법을 엄히 령 흘고 태쳐 백성을 만히 물녀 치고 흘지
아니 흘리 오도 흑허 보노 군수들이 흑가 하도 라 갈
질이 업고 흑도 라 가기를 원치 아니 흘는 채왕왕 이
모 혀작란 흘나 능히 법을 베퍼 안무 흘고 미령하에

밧 출 죄 어 넷 적의 군수 를 놓 죄 의 봇 치 는 밥 을 드 이 밧
흐 야 일 이 이 시 면 를 데 빼 고 일 이 암 죄 면 힘 떠 밧 갈
게 훌 지 나 일 이 암 암 시 노 는 박 성 을 안 돈 흘 며 도 흑
허 진 군 수 를 약 속 흘 면 나라 의 세 납 미 이 를 인 흘 야
총 실 흘 거 시 모 상 하에 져 춤 흘 거 시 이 를 행 날 어 요
부 훌 거 사 니 미 는 춤 번 드 러 두 어 가 지 조 흘 말 이 웃
출 지 라 삼 가 상 고 흘 전 터 복 전 성에 터 만 은 희 외에
외로 이 잊 셔 듯 흔 더 르 터 사 름 은 희 소 흘 고 극 히 토
옥 흘 야 무 식 이 만 하 나 내 일 이 밧 잘 아 어 고 부 세 밧
눈 외에 그 은 처 니 산 좌 우 각 처에 입 자 암 노 목 은 밧

치가 하리 척 홀만 채 천 수 백 경의 나리지 아니니
니만 일 능히 백 성을 보화 밧갈게 헤고 실상으로 다
스린 즉 물에 빤 듯 하업고 저 주에도 백 성이 업게
흐면 나라와 백 성의 계 유익을 미 불교 헤거지 모그
리 아닌즉 면토는 한 이잇 고 성령은 놀노 성 헤니 일
년에 거두는 것도 오히려 낙 낙지 못 헤거든 편 벽된
제 양을 당 헤면 엊지 전 뒤 리모 근 리의 황 성의 앗는
모든 판원이 죠 명의 루 추 주 청 헤야 각 처 방 백의 계
신 척 헤야 디방 판을 동독 헤야 묵은 밧 출이 고 헤고
슈도를 슈죽 헤는 거시 백 성의 계가 장 급 헤비 라 헤

뒤 각 주부 현관원들 이례 등이 조 되여 다 물파 삼
 년 이오 후 반년도 되니 안준조리도 멋 쳐답지 못 했
 눈지라 그 중에 비록 하나둘 허 백성의 일에 유익 했
 는 채 이 실지라도 결을 치못 했느니 치민 했기의 성
 익 있는 사람으로 향 야금 구지 주청 향 야 일변 백성
 을 봄 대기하고 향 머 일변 밟 같 니다가 만일 멋 쳐로령
 치 못 했 야 셔 졸연이 이직 했면 후에 오는 사람 이 암
 익로 곳 치다 가 일을 해롭게 했 미족히 넘려 훌바 모
 일색 출사가 설시 했 고 성공 했게 바려 두지 아니 했
 야 벼슬을 올 마가고 필경 죄책을 당 했느니 원컨대

몸이 죽었으면 낫으련다. 놀라운 것은 고생이 많고
이 허약한 몸에 속은 걸 깨닫는 것이다. 나의 국가의 참모들이
만나고 백성의 저물이 또 허투오 허리가 엉지 아득
답지 아니 허락

론치한

한 피 다
의 론 희 미
라

하늘에 저 앙이 류 헣 는 미 어 뇌 나라의 업 스리 오 마
눈 일 이 지는 후에 비로 쇼 구원 는 기 르도 모 는 거
시 당 는 기 전에 미리 경 룬 는 것과 엇더 훌고 훌 물
며 일 이 국가와 백 성의 계 계 판 는 거 시 담 도 지 안
이 더 옥 몬 쟈 힘 교 기 를 밟 비 훌 비 라 미 쟈 선 부 각 성
이련 첨 히 한 저 를 만나 고 동 남의 눈 도 슈 환 이 만 흐
니 만 일 농 무의 모 음을 전 주 이 흐지 아니 흐다 가 설
혹 일 편 된 저 앙이 우연 이 너로 면 엇지 뻐 막을 고 이
제 어 린의 론 셰 묵 목 을 베 교 는 내 청 친 친 조 셰 하 을

히라하나 흘온 구혁 빛 속이 미 물길이라 을 쳐 미 오 버거는
흘온 슈분 거를 물을 빼 미 오 버거는 흘온 나무 물심
이 미니 난호와 말호 득 각각 및 담호 비잇고 아오로
힘쁘 즉 유익 흘 물고 초바를 거시고 구혁을 쳐 노
거손 엉더 흘 미뇨 넷적에 하우 시 슈도 를 흘 흘 시고
구혁이 힘을 다 흘 시니 후작이 인 흘 야 농스 흘 는 공
을 베고 끊고 하은 쥬삼리의 셔다인 흘 야 빼니 곳하
흔지 양을 막나도 죽디 죠리 되엇단 말을 둇지 못하
자는 다 구혁이 공력이 만 흘 미리 내 진나라에 빗쳐
는 경련 범위에 흘고 밧 두 번을 놓히 빗하 갈과 물령

흐미 구혁제 되 탕연이 난이 미암스니 그 후에 슈저
와 한 저비로 쇠 잇서 저양이 두어고 올의 맛 촌지라
한나라로 봇허 빼오므로 선처 흥 눈아 전이 무리지
어 낫세 린사 름이 업는 빙아 내로 뒤정 현법을 결단
코 회복지 못 흘줄 침히 알고 모직 슈도를 숨혀 근원
을 치며 물골을 인도하고 시네 물을 소통하며 슈문
을 노하져 슈 흔였다 가려노 하 밧 히다 하니 한 저와
슈저를 만나도 흥년들 가근심아니 흐느니 이는 정
빅방 축은 민동기로 유명호 사람이라 이 무리 방축이 무궁을 리를 힘
넓은 바라 옹정사 절에 이현친왕이 종대신으로 더

풍호는 신령만 허가하는 자를 기다리지
아니는 야가 하늘에서 오령원왕 야의 눈래 선풍거
무(주) 라 뿐 눈구름을 떠 방향 야인력에 슬고로 오물되신
흐리한 저 물 만나 거든 우물을 깊히 파고 풍서 힘으
로 물을 기러 밟히 부이 며 향마 물 만나 거든 슬도 물
치고 풍서 힘으로 물을 펴인도 흥양장이 모부이 흔
공정이 입었을 때 불철주야 흥리나 일편된 저 양
을 험지 푹히 근심 흥리 오 그 슬분 뽀기 눈 엉더케 흥
노 노상고 흥전 흥이 범이 동양의 성 흥 흥 눈지 라
동양의 노 눈운이 게드리 그 물의 터 동양의 석보리

를심이미홀노묘^호방법이이시니농민이곁을잇
는썩의촌가의모슬파되바축을전교하^호야조음
도물이식^호폐업게^호고사魯과^류축의모종동파
온^온그더러온^온물을^물그곳의부^부엇다가^다가^다맛^맛히^히거^거를^를게^게
흐^흐며^며밧^밧이^이랑^랑활^활협^협을^을할^할갈^갈짓^짓치^치하고^{하고}구^구혁^혁을^을치^치되^되김
기^기한^한처^처남^남죽^죽게^게흐^흐엿^엿다가^제썩^썩에^에보^보리^리를^를심^심이^이뒤
농^농뷔^뷔파^파종^종흐^흐기^기를^를못^못초^초미^미슈^슈분^분을^을슈^슈운^운흐^흐야^야밧^밧흐^흐로
가^가셔^셔큰^큰박^박의^의주^주로^로를^를질^질게^게맛^맛초^초와^와밧^밧구^구혁^혁에^에초^초례^례로
부^부어^어가^가득^득히^히져^져슈^슈흐^흐야^야토^토익^익을^을붓^붓게^게흐^흐나^나이^이후^후에^에비
록^록비^비오^오자^자아^아나^나보^보리^리는^는박^박시^시나^나며^며보^보리^리박^박시^시이

삼초즈즈라거든전파즈치^설_설리부드마이삭
이팜^설의뇨^설리부드마결설^설리부드마^설리부드
붓노리일노말티암아보리태풍^설리동양보리밧
히한저를근심아는밧재대더이풀마드미오급기
이양હ^설의뇨반^설시비오기롭기다리나이뇨뚱
원으로다^설미^설업^설수^설리^설직^설농^설자^설이^설서^설슈^설분^설을^설션^설로
모흐는거시유^설익^설힐^설일^설이만^설희^설나^설미^설롯^설려^설역^설이^설성^설흐
는거시더러온지운이사^설람^설의^설게^설다^설는^설처^설되^설는^설비^설나
파연^설능^설하^설리^설온^설물^설건^설을^설처^설워^설들^설밧^설과^설보^설노^설죽^설성^설중
의^설는^설맑^설은^설거^설운^설만^설모^설혔^설고^설도^설썹^설흐^설기^설를^설썩^설로^설흐^설면^설려

이니 이에 미로 말미암아 그려나리 모이노 빠
성이 켜우지마오 삼복금위에 더러온 물미질거
리하고 하지 아니 쓰금) 긴러온 죄운이 질에 가득한
야(이)인의 죄를 저스리기 이고 끝지 아니 쓰고 사진
행(행)을 차하려 험거 시내이 눈도 흥인의 계유이 쓰
미모도 흑(은)의 창(창)이 공허하고 빙성(빙성)이 업(업)을 거시
궁(궁)술(술)에 만일 슬(슬)문을 모화로 만일 만히 심었다가
본(본)아지 베(베)를(를) 훔(훔) 끗여 러한(한)지 코(코)게(게)잇(잇) 썸도
비(비)성이 풀(풀)이(이)거시라 하 업지 아니 훔거 시내이 눈도
양사(양사) 끗(끗) 삼(삼) 흰(흰) 젤(젤) 두리지 아니 훔다 훔(끗) 말(말)

이 시 미 곽 이 계 셔 부 각 성 이 셔 토 품 이 모 린 심 이 기
의 못 당 흐 터 벼 러 번 한 저 류 만 나 미 백 성 이 져 축 이
업 소 니 금 청 예 방 흐 도 리 물 성 각 흐 야 일 즉 죄 흐 즉
슈 분 모 흐 눈 범 을 못 당 하 기 벼 범 즉 흐 지 아 니 흐 나
나 무 심 드 는 범 은 노 엇 더 흐 고 셔 인 이 니 죽 뒤 벗 이
랑 이 두 렇 흐 꽃 이 수 면 에 나 무 를 만 하 심 은 다 흐 니
대 개 날 기 발 성 흐 혜 아 리 로 봇 허 올 나 가 는 니 그 발
성 능 는 밧 자 는 토 막 을 조 뢰 흐 엇 고 토 막 이 능 하 나
무 른 비 양 흐 는 밧 자 는 슈 카 이 시 를 인 흐 미 라 목 근
이 듯 히 드 러 가 미 터 쪽 을 듯 하 췄 고 우 히 광 교 흐 힘

을 베풀 쌐 아니라 가히 물도 흘야 품은 본이로 봇허
듯 히 아지스 못 치게 흘야 가마니조 라고 그 읍이 봇
게 흘퍼디 셰 평한 흘야 물의 가기적 이 먼 밧 히 임의
흘족 히 비모지 못 흘교도 두레로 물을 기러부은 비
업교 오자나무를 두어 물을 혜드린 즉지 염도 무성
흐고 음음 흘리운 이적시 고무드 러우 흐로 봇허나
려 드 흐로 드 러가서 토릭이 점점 윤락 흘교 오르락
나리락 흘며 혀드리며 씨 쁨기 를 무궁히 흘련 비록
한저를 만나도 오히려 속 흘히 마르기 이니 그지 아니
흘거 시오 만일 흘연 이비를 어드면 전에 미진 흘슈

거에 쇠 우뢰을 겸 흐야 련 촉 흐여 부려 나기 아죠신
속 훌거 시오 만일 나무업는 밧 히 물목시 젝이 머라
능히 평디에 물을 다 혀드려 모지 못 흐면 비가 우연
이 울지 라도 물은 큰 본아리로 쟁지 누니 우식 썰 희
는 듯 히드려 가미 두어 치의지 나지 못 흐고 물은 듯
히드려 가미 한주 히남으리 당지며 저 축 훌거 시업
스리 마르기를 가히 셔셔 기다릴지 라 그린 고로넷
적 정련법은 반드시 두것 히봉나무를 심으 누니 하
나흔구에 치기를 위 흐미 오하나흔오육을 호위 흐
기를 위 흐미리니 후세사람은 등한이녀 기교 숨히

지 아니 흘야 나무심을 죄줄 아지 못 흐고 흘고 밟 출 흰
흘 흘 게 흘 줄 만 아니 도로 혀셔 인의 물정을 드라 중
리 흘 눈 이만 가지 못 흘지 라저 상지 인이 널 니 효 유
흐 야 백성으로 흘 야 물방가의 나무잇는 흘 눈 더 심
으고 나무업는 흘는 만히 심이면 비록 비가 폐색의
아니와도 져 기미를 비잇 슬듯 흘리라 대더나무심
으노 범이 셔인이 창기 흘 토 흘 나실 노랫 범을 스승
흐 미니 무어 슬 빙자 흘고 아니 흘리오 그린 고로 흘
오 흘 근심을 만나 비로요 구폐 흘기를 도모 흘는 거
시 당 흘기 전에 미리 경륜 흘 눈 것과 엇더 흘고 숨 가

미천호말슴을 드리느니 어리석은 재천번성 각호
야호번에는 효험이 될듯하니라



이언권지 일종

